

가짜열녀 설화에 나타난 ‘작은 주인’의 행위와 그 의미

이효순*

【 차 례 】

- I. 서론
- II. 가짜열녀 설화의 서사와 ‘작은 주인’의 인물 형상
- III. ‘작은 주인’의 열녀 만들기 및 ‘열녀비 소각’의 의미와
사회적 평가
- IV. 결론

국문초록

가짜열녀 설화는 열녀담론 아래에서 열녀담론의 대항적 텍스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어린 주인의 열녀비 소각 행위 자체에 상충 가문의 열녀 만들기에 대한 전승 집단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그간의 해석은 작은 주인과 그 가문의 부귀영화식 결말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새롭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 작은 주인은 성인도 아니고, 가장이 되었지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계적인 인물이다. 열녀는 경계적인 인물인 작은 주인이 가문의 여성이 저지른 부정한 상황을 목도했을 때 선택한 정치적 카드이다. 이때 열녀가 선택된 것은 조선시대를 관통하고 있던 열녀 담론을 참조한 것이다.

텍스트는 일차적으로 어린 주인이 가문의 가장으로 거듭나는 성장 서사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여타의 열녀나 간부설화와는 달리 여성이 타자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는 가문 의식 아래 가문의 위기 상황을 ‘가짜열녀’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박문수의 등장과 침묵은 작은 주인의

* 제1저자,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820359@cbnu.ac.kr

행위에 대한 조력 행위로, 그의 도움으로 작은 주인의 가문은 부정에서 벗어나 유지를 넘어 영달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텍스트는 결말부의 구연자들의 평어를 통하여 가짜 열녀 만들기의 허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일부는 가문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고, 일부는 가문의식 아래 열녀의 허위성을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다. 곧 가짜열녀 설화는 작은 주인과 박문수, 열녀의 서사가 교차되어 있으며, 보여주기 방식을 통하여 가문 의식과 열녀 정려에 대한 허위의식을 이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열쇠어 : 성장서사, 자격시련, 텍스트세계, 지표성, 경계적 인물, 열녀비, 열녀, 가짜열녀

I. 서론

가짜열녀 설화는 간통을 저지른 과부를 죽여서 열녀로 위장시켰다는 이야기이다.¹⁾ 이 이야기는 특히 열녀비를 세우고서 곧장 불태운다는 점과 박문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전승의 측면에서도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기는 하지만 경상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경상도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의 경우 현풍 광씨가 특정 가문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또한 특징적이다. 갈래적으로는 간통을 한 과부가 등장하지만, 징치에서 끝나지 않고 열녀로 위장되어 열녀로 기억된다는 점에서 간부설화보다는 열녀 설화의 하위 갈래로써 논의된 텍스트이다.

가짜열녀 설화는 열녀 설화의 하위 갈래로 다루어지다가 광정식의 텍스트 유형 분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광정식은 가짜열녀 설화를 개별 논의 대상으로 끌어내면서, 그 유형을 일반형과 가문형으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가짜열녀 설화의 전승은 설화 담당층의 사회적 욕구불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성의 정절 의식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바로 설화 담당층의 사회적 욕구불만의 반응이다. 여성의 정절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구와 기대

1) 각편에 따라서는 ‘간통을 저지르다가 그 행위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죽임당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으며, 과부와 그 간부(姦夫)를 외부인인 박문수가 살해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징벌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가짜열녀 설화의 존재 및 전승 의의는 열녀 설화에 대한 담론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²⁾

곽정식이 가짜열녀 설화를 열녀 설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면, 곽성민은 가짜열녀 설화를 아지(兒智) 설화의 서사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죽은 과부를 열녀로 위장시키는 주인이 어린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가 기지를 발휘하여 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박문수가 감탄한다는 점에서 아지 설화의 서사구조를 일정부분 공유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그의 주장에 의하면 아지 설화의 서사적 관습에 현풍 곽씨가문이 열녀로 유명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결부되어 형성된 것이 가짜열녀 설화이다. 특히 현풍 곽씨가 십이정문을 정려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과 <곽씨전>을 통해 가문의 열녀 담론을 공론화하였다고 보면서 가짜열녀 설화를 그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텍스트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열녀문을 소각하는 것은 가짜열녀 만들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표출이고, 가짜열녀 설화는 가문의 위선과 열녀 정려의 허술함에 대한 민중적인 고발인 것이다.³⁾

한편 서정현은 영남지역에 열녀와 관련된 문헌 기록과 구비 설화가 많음에 주목하여, 영남 지역의 열녀 설화의 지역적 특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짜열녀 설화 19편 가운데 11편이 영남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현풍 곽씨가 특정 가문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가짜열녀 설화를 영남 특유의 지역색에 기초한 설화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남 지역은 열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뚜렷한데, 이를 중앙으로 나아가지 못한 영남의 재지사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정치 권력을 확

2) 곽정식, 「가짜 열녀 이야기의 존재 양상과 전승 의식」,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2005.

3) 곽성민, 「가짜열녀이야기의 형성 맥락과 전승 의미」, 『한국문학총론』 74, 한국문학회, 2016.

립, 강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라고 해석하였다. 결국 그는 가짜열녀 설화는 상층의 열 관념을 수용하면서도 성욕과 같은 자연스러운 욕망을 전면 부정하려는 폭력적인 측면에는 거부감을 드러내는 하층의 자주적 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

이처럼 가짜열녀 설화는 형성 맥락과 전승 의식, 지역적 특색에 대한 개별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열녀 담론 혹은 열녀 설화에 대한 논의 속에서 열녀 담론에 대한 대항적 텍스트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텍스트에서 열녀라는 개념을 부정하는지, 가짜열녀를 만든 가문의 행위를 ‘텍스트 세계의 마을 사람들’이나 구연자들이 비판하고 있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열녀라는 거대 담론에서 설화 향유자들이 어떻게 담론을 이해하고 대응했는지를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열녀라는 거대한 담론에 이끌려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요컨대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와 그 주인공이 이야기 즉 사건을 전후로 하여 어떤 변화를 맞이하였는가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전승 의도와 맥락을 진단하기 이전에 텍스트는 당대의 열녀 담론에 대해 비판하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가, 비판하고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비판하는가, 비판하지 않는다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가짜열녀 설화의 주인공인 어린 가장을 ‘작은 주인’이라고 명명하고,⁵⁾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바라봤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읽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작은 주인의 서사 속에서 열녀 만들기 행위와 열녀비 소각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를 찾는 것

4) 서정현, 「영남지역 구비열녀 설화의 양상과 그 의미」, 『인문사회 21』 9(4),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5) ‘작은 주인’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는 받았으나 수행 능력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가문 내에서의 통솔력을 확고히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이때 ‘어린’이라는 수식어는 유소년기의 ‘어린이’를 연상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한 어휘로 ‘작은’을 사용하였다.

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 가짜열녀 설화의 서사와 ‘작은 주인’의 인물 형상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가짜열녀 설화는 총 18편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경상도에 전승되는 이야기가 8편으로 지역적 편중이 있는 편이다.⁶⁾ 또한 경상도에 전승되는 이야기 가운데 <어사 박문수와 만든 열녀>를 제외한 7편에서 현풍 광씨 가문이 등장하며,⁷⁾ 박문수가 외부인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가짜열녀 설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박문수가 가문(또는 지역)을 정탐차 방문하여 어느 집에 유숙하다.
2. 작은 주인이 나와 박문수를 맞이하다.
3. 작은 주인(또는 박문수)이 과부의 간통 행위를 목격하다.
4. 작은 주인(또는 박문수)이 간통한 두 남녀를 죽이다.
5. 작은 주인이 죽은 과부를 열녀로 꾸미고 열녀비를 세우다.
6. 작은 주인이 열녀비를 소각하고, 그 원혼을 외부로 돌리다.
7. 박문수가 작은 주인의 기지를 높이 사 칭찬 또는 등용하다.

6) 각편의 이야기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청주 한씨 십이정문(박문수일화)>(1-3), <박문수의 실수>(2-5), <박문수 일화(열녀문의 내력)>(4-4), <현풍 광씨는 서방질해도 열녀>(4-5), <박문수가 감탄한 어떤 사람의 지혜>(5-7), <박문수의 열녀 정탐>(6-3), <박문수 일화(간부퇴치)>(6-8), <박문수 어사와 열녀문>(6-9), <박문수 일화(부정한 여자의 열녀비)>(6-9), <엮어진 열녀비>(6-12), <헛 열녀비>(7-1), <부정한 형수를 열녀로 만든 광씨>(7-14), <현풍 광씨 효자 열녀각>(7-15), <광씨 집안의 열녀>(8-1), <입으로 만든 열녀>(8-3), <현풍 광씨 집안의 열녀>(8-4), <현풍 광씨의 열녀>(8-13), <어사 박문수와 만든 열녀>(8-13).

7) 충청남도에서 채록된 두 편의 이야기 <박문수 일화(열녀문의 내력)>와 <현풍 광씨는 서방질해도 열녀>에서도 현풍 광씨가 언급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가짜열녀 설화와 현풍 광씨 사이에는 모종의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 외에 청주 한씨, 원산 김씨, 고 흥 송씨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가짜열녀 설화는 설화라는 장르에서 박문수가 가진 함의가 큰 탓에 박문수를 중심으로 한 ‘박문수 일화’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 이야기의 핵심 사건을 추동시키는 주체는 ‘작은 주인’이다. 작은 주인은 대개 나이로는 10대 중후반의 ‘총각’ 또는 ‘초립동이’로 묘사되는 인물이다.⁸⁾ 곧 작은 주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면서, 가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장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이다.⁹⁾ 원래 있던 가장이 일찍 죽음에 따라 어린 주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가장으로서 수행한 경력이 적은 상태이다. 따라서 그는 어린아이도,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다져진 인물도 아닌 ‘경계적 인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가문은 대개 가세는 기울지 않았고¹⁰⁾ 하인도 있지만, 가문의 구성원은 노(조)모와 몇 해 또는 몇 달 전 죽은 가장의 부인인 과부 그리고 작은 주인뿐이다.

이렇듯 이야기 초반에 그려지는 작은 주인의 상태 나아가 가문의 상황은 가문의 정도를 바로잡을 권위 있는 가장의 부재를 보여준다. 가장의 부재는 이 집안에 주어진 각종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제약이 흔들리는 것, 곧 그레마스 식의 전도된 상황에서의 부정한 세계임을 암시한다. 과부가 외간 남자와 사통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텍스트에서 과부가 간통 행위와 더불어 본 남편을 살해하고 이후 작은 주

8) 작은 주인의 나이 등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4세 총각(<청주한씨 십이정문(박문수 일화)>), 더벅머리 총각(<어사 박문수와 만든 열녀>), 초록당이 시숙(<현풍 광씨의 열녀>), 초댕이(<박문수 일화[열녀문의 내력]>), 어떤 총각(<현풍 광씨는 서방질해도 열녀>), 열 댓 살 청지기(<박문수가 감탄한 어떤 남자의 지혜>), 열에 몇 살 먹은 도령(<박문수의 열녀 정탐>), 일곱살 먹은 애(<박문수 일화[간부퇴치]>), 열 대여섯살 먹은 남자 아이(<박문수 어사와 열녀문>), 열 칠팔살 먹은 총각 아이(<박문수 일화[부정한 여자의 열녀비]>), 초립을 쓴 젊은 소년(<현풍 광씨 효자 열녀각>), 어떤 총각(<광씨 집안의 열녀>), 열 세 살 먹은 조고만 아이(<현풍 광씨 집안의 열녀>)

9) 지금의 셈법으로는 ‘어린아이’로 읽힐 수 있으나 총각, 초립동이 등으로 서술되는 것으로 보아 유소년기의 ‘나이가 적은 아이로 보기에는 어려울 듯하다.

10) 4편의 설화에서 가난이 묘사되는데, 현풍 광씨이면서 가난한 설화가 2편(<현풍 광씨는 서방질해도 열녀>, <현풍 광씨 효자 열녀각>), 이름 없는 집안이면서 가난한 설화가 2편(<박문수 일화[부정한 여자의 열녀비]>, <어사 박문수와 만든 열녀>)이다.

인마저도 살해하는 악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¹¹⁾

가장의 부재로 인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과부가 간통을 저지름으로써 가문의 윤리 규범이 깨진다. 이러한 부정한 상황은 가장에게 주어진 일종의 시련이다. 세계는 사태를 수습하여 가문의 윤리와 규범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가문의 가장은 일견 외빈객(박문수)을 맞이하거나, 마을의 대소사에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장의 권위와 역할을 모두 부여받은 것처럼 보인다.¹²⁾ 하지만 그는 아직 ‘어린’ 존재로서 가문 내에서 가장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가지지는 못한 듯하다. 특히 일부 텍스트에서 과부의 살해에서 열녀비 소각에 이르기까지 동참한 하인들을 죽음으로써 입막음을 하는 것은 가문 내에서의 통솔력이 아직 완전히 서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작은 주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상황은 가권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일종의 시련이다. 곧 간통한 과부에 대한 처치와 그 이후의 ‘열녀 만들기’는 그가 가문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 극복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과부의 간통을 목격한 이후의 일련의 행동들—간통을 저지른 과부를 죽이고 자결로 위장한 것이나 열녀비를 세우고 잔치를 벌

11) “아, 그 애기 꼬방해서 인제까지 없애버리제.” / “아! 그 일이 급작히 터뜨려서야 뭇 일이 순서대로 잘 안되니께 인자 살랑살랑 어찌케 해결한다?”고 / “아니 전번에 니그 남편 니에미양 그 독한 술로 타서 주댁이 얼른 쥐 불면 얼른 죽어볼 것 아니냐? 죽을 것 아니냐?” (<박문수 일화(부정한 여자의 열녀비)>)

12) “아, 저 아무덕에서 회를 한다는데 도련님 오시랍니다.” / 그 종놈덜이 일르는 겨유. / “나, 오늘 저녁 손님덜 모셨으니까 못 간다고, 느이끼리 회를 해라구 그래라.” / 조금 있더니 또 왔어유. / “도련님이 오셔야 회가 된답니다.” (<청주한씨 십이정문(박문수 일화)>)

쪼끔 있더니 누가 떠억 와서 ‘오늘 저녁이 저어 동네-지금이루 허면 반상회여-회가 있으니까 아무개집으루 모이기루 이렇게 결정 했다야.’구 그 인저 그러구, / “그 저는 거기 가야겠읍니다. 그러닝가 저어 죄송하지만 응? 좀 앉어서 기시라.” (<현풍 광씨는 서방질해도 열녀>)

“아이 문중 회의가 있다고 잠깐 좀 오셨다 가랍니다.” / 그러거든. 근께, / “나 온(오늘) 저녁 문중 회의라도 못 가겠다. 손님을 모셨다. 가, 문중에 가 그렇게 말씀을 해라.” / 그런께 종이 갔다 낸중 또 와서, / “아이 도련님이 아니믄 온 저녁 회의를 결국 결정을 못 보겠다고 기여이 좀 왔다 가시랍니다.” (<박문수의 열녀 정탐>)

인 뒤 열녀비를 불태운 일, 각편에 따라서 일련의 사건을 도운 하인들을 죽인 것—은 범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이지만 가문 의식, 가문 윤리 내에서는 수용 가능한 범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과부가 무덤마저 사라지는 것과는 달리 작은 주인이 국가에 등용되는 것과도 연결된다. 과부와 작은 주인의 차이는 그들 욕망이 가진 방향성에서도 나타난다. 과부의 행위가 그녀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다면, 작은 주인은 ‘가문을 위해서’라는 당위성을 가진다. 과부가 결국 죽고 작은 주인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가문까지 빛내었다는 점에서 이야기 속의 공동체 사회는 공동체의 관습을 깨는 개인의 욕망과 집단의 이익이라는 대결 구도에서 후자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작은 주인의 가장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획득하기 위한 시련을 다루고 있는 가짜열녀 설화는 과부의 죽음 곧 작은 주인의 과부 살해 행위를 기점으로 전후반부의 서사가 구분된다. 과부의 죽음 이전에는 가문을 제대로 통솔할 가장의 부재, 윤리적으로 금기시되는 간통 행위, 그리고 정치로 포장되어 있지만 살인 행위까지 안정한 공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과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작은 주인이 과부를 살해하고, 과부를 열녀로 위장함으로써 (윤리와는 상관 없이)가문을 둘러싼 부정한 상황들이 해소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짜열녀 설화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서사의 전개					
전반부			후반부		
간통을 저지른 과부, 작은 주인이 가장인 가문			열녀를 배출한 가문, 뛰어난 가장이 있는 가문		
박문수의 방문	과부의 간통과 목격	과부 살해	열녀 위장 및 열녀비 정려	열녀비 소각	작은 주인 등용, 가문 득세

위 표는 이야기를 하나의 시퀀스(sequence)로 파악하고 그려낸 그레마스의 서사 도식을 활용한 것이다.¹³⁾ 작은 주인의 과부 살해 행위를 기점으로 가문 내 부정한 상황들—거듭 언급하고 있는 간통이나 살인 행위 등—이 해소된다. 특히 작은 주인이 과부를 열녀로 위장하면서부터 해당 가문은 열녀를 배출한 가문이 되며, 작은 주인은 열녀를 배출한 가문의 가장이 된다. 나아가 박문수의 칭찬(혹은 등용)으로 대외적인 인정을 받는다. 이로써 가장이라는 명함만을 가진 작은 주인은 과부 살해 행위를 기점으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종내에는 열녀를 배출한 가문의 가장이자, 가문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능력을 지닌 가장이 된다.

이처럼 작은 주인의 행위는 그의 개인적인 영광과 더불어 가문의 영광까지 이루어내는데, 여기에는 가문 내에 팽배한 부정한 것들을 ‘소거’시키는 방식이 사용된다. 간통을 저지른 가문 내 구성원을 처단하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없애버리고, 나아가 열녀로 위장하는 것은 부정을 정화하는 것이 아닌 부정을 안정으로 뒤덮는 것이다. 이때 기껏 만든 열녀의 증거인 열녀비를 소각하는 행위는 안정에 가려진 부정의 실체에 대한 완전한 증거 인멸을 의미한다.

Ⅲ. ‘작은 주인’의 열녀 만들기 및 ‘열녀비 소각’의 의미와 사회적 평가

작은 주인의 일련의 행동들을 가문의식 아래서 자행되었으나 당대 열녀 정령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것은 텍스트 세계 내적인

13) 그레마스(A. J. Greimas)에 따르면 이야기는 연속적으로 제시·구성되는 시간적 차원을 갖고 있으므로, 이야기 속 행동 양식은 상호 선행성과 후행성의 관계를 맺는다. 이야기의 선후에는 상황의 반전이 요구되는데, 이야기 전반부에는 이야기를 통해 실현되는 가치 질서와 상반되는 상황이나 내용이 나타나며, 후반부에는 전반부의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세계가 질서를 찾는다. 그레마스(A. J. Greimas),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258~261쪽.

지향과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전승 집단의 전승 맥락, 의도가 뒤섞인 해석이다. 조선 후기 사회의 열녀 정령에 대한 허술함이나 현풍 관씨를 내세운 당대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의식은 구연자의 평어(評語)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작은 주인의 행위에서 그러한 해석을 직접적으로 끌어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작은 주인의 행동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지혜로운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청주한씨 십이정문(박문수 일화)>

그걸 보니까 시상(세상)에 참 박문수가 다시 배우겠단 말야. 개한테, 아, 그래, ‘참 훌륭한 집안이다. 장래 니가 크게 되겠다’ 그래구 거기서 떠나 왔다는 게유.

<박문수 일화[열녀문의 내력]>

의사가 오사 그 박문수가 보기를 자기보다 낮게 봤거든. 모든 그저 하는 범절을 보니까 예삿 사람이 아녀서 불러다 쓸라구 하닝께 그걸 마다구 그냥 도망가.

<박문수의 열녀 정탐>

도령을 서울로 불렀어. 불러갖고, “너는 좌우간 정승도 되겠고, 큰 집 지킬 만하다.”

<박문수 일화(간부퇴치)>

그놈을 더리고 다니는디 어떡코롬 머리가 영리하던지 에 모든 난을 피합니다.

<어사 박문수와 만든 열녀>

착실한 시동생을 놔야 두 놓이까네, 그래 나쁜 짓을 해도 열녀가 되더라.

위 인용문은 작은 주인에 대한 평가들이다. 특히 <박문수의 열녀 정

탐>에서 박문수는 작은 주인을 ‘큰 집’ 곧 조정(朝廷)을 지킬 만한 인사로 보았으며, <박문수 일화(간부퇴치)>에서는 어사 활동에 작은 주인을 동행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작은 주인의 행동들은 텍스트 세계 내적으로는 윤리적 지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더욱이 박문수가 등장하여 그를 기용한다는 점에서 작은 주인의 행동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그려져서는 안 된다. 작은 주인의 행위를 문제적으로 바라보면 적어도 그를 방관하거나 나아가 옹호한 박문수 또한 문제적으로 읽혀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작은 주인이 간통을 저지른 과부를 열녀로 만드는 행위는 작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 그가 간통을 묵도한 시점에서 과부는 형수가 아니라 가문의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한 여인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단죄와 더불어 그녀가 죽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둘러대기 위한 더없이 좋은 방법이 ‘열녀로서의 자결’이기 때문이다. 가문의 여자가 간통을 저지르다가 들켜서 죽었다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일을 발설할 사람은 박문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으므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혀질 일이 없다.

그렇다면 열녀비 소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작은 주인이 열녀비를 소각하는 행위는 서사를 전환시키는 뚜렷한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가장 이질적인 부분이다. 특히 열녀비 정려에 걸리는 실제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던 것을 미루어본다면¹⁴⁾ 설화적 표현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가짜열녀 설화 전체 텍스트에서 과부를 누가 죽이든지 작은 주인이 죽은 과부를 열녀로 위장시키고 장례를 치른 후 열녀비를 세우고 잔치를 여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열녀비는 그 가문에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은 열녀가 있음을 표시하는 증거물이자 지표 기호이다. 이러한 열녀비를 소각하는 것은 외부인들에게 열녀라는 존재를 증명할 근거를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열녀>.

없애는 것처럼 여겨진다.

과부가 열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녀를 통해 가문의 영화를 이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열녀비를 통한 증명이 요구된다. 송덕비(頌德碑)나 자서전과 같이 인간의 유한한 생보다 영속(永續) 가능한 매체에 이름을 새김으로써 인간의 무한한 가치가 증명되고 기억된다는 점에 서¹⁵⁾ 과부의 열행은 어딘가에 새김으로써 오랜 시간 기억되어야만 가문의 영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곧 열녀비를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인 시간대의 특정한 인물의 존재와 그 사건을 증명하는 것이다.

흠결이 없는 열녀라면 열녀비를 통해 그의 존재와 행위를 기리고 누대로 기억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하지만 가짜열녀 설화의 열녀비는 거짓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이 가문에 열녀가 났음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 열행이 부정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사실 또한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박문수가 감탄한 어떤 남자의 지혜>의 작은 주인이 “저게 정문이요. 그러나 세상 사람으 오래갈 정문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짜열녀의 열녀비는 사건의 온상, 가문에 부정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 함께 조각되고 기억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작은 주인은 나라에 신고하여 정려를 받는 동시에 큰 잔치를 열어 대내외적으로 가문에 열녀가 났음을 알리는 한편, 그날 아무도 몰래 열녀비를 소각하여 ‘열녀가 난 가문’이라는 명제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과부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작은 주인의 열녀비 소각은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행위이다. 그는 잔치를 열면서도 하인들에게 찾아오는 거지들을 푸대접하라고 이른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날 밤 몰래 열녀비를 불태우고, 이튿날 열녀비가 불탄 것은 전날 푸대접받은 거지들의 소행이라고 소문을 내어 그 원흉을 외부의 존재에게 뒤집어씌운다. 거지들은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15)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2011, 54~55쪽.

인물이기도 하지만 떠돌이의 특성 또한 지니면서, 지역 사회 공동체에서 변두리에 속한 배척받는 존재이다. 이들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한들 밝혀지지 않을 것이며 설령 고발한다고 한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거나, 자신의 가문을 편을 들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계산 아래 작은 주인은 거지들을 거짓 방화범으로 낙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부의 간통 사실이 외부로 누설될 가능성이 없다면 열녀비는 소각되지 않는다. 예컨대 간통, 살인, 가짜열녀 만들기라는 일련의 행위를 수행 또는 관찰한 박문수가 간통이나 열녀 위장을 공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열녀비를 소각하지 않고 가문의 영달을 정당화하는 지표로 끊임없이 활용한다.

<어사 박문수와 만든 열녀>

“이 입구에 열녀비를 세와 났는데, 누구 집 비고?”

고 이래 물었다.

“그래 즈그 비라고. 우리 형수님 비라고. 그때 같이 따러 갈라 카는 형수로 기어이 말려가지고 살렸다가 죽은 형수비라.”

고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삼 년 전에 과거일은 어이 하고 그 비를 세웠느냐?”

고.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총각이 나가가지고 낮으로 가지고 들오더란다. 낮을 가지고 손님 보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런 말로 입 밖에 내몬 내가 이 낮을 가지고 당장 당신을 죽이 뿐다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형수는 어떻기나, 우리 가문을 위해서러 했는 일인데...”

하는 그기지.[청중:총각이 가문을 위해서 그랬다.]응,

“손님 한 분만 입을 안 떠몬 다른 사람은 모른다 아이요? 산중에 혼차 사이. 그러이 당신이 왜 그래 쓸 데 없는 말을 합니까? 지발 안 죽을라 쿠거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카더란다.

위 인용문은 소각되지 않은 열녀비를 본 박문수가 간통과 열녀 위장을 공론화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작은 주인이 박문수를 협박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대목은 한편으로는 가짜열녀의 열녀비가 가진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 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렵곤했던 박문수의 기억이 열녀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작은 주인의 협박에 박문수가 꼬리를 내림으로써 작은 주인의 협박은 유효했다고 추정된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존재는 작은 주인과 박문수뿐이며, 이야기를 발설할 가능성이 있는 박문수의 입을 막음으로써 열녀비를 소각하지 않아도 가짜열녀는 ‘열녀’로만 기억되고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열녀비를 소각하면서 부정을 저지른 인물에 대해 드러내는 작은 주인의 노골적인 분노는 상술하였던 작은 주인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드러내는 정념적 표현이다.

<박문수의 열녀 정탐>

박문수가 가본께 그놈 하는 것이 열녀 아니믄 절대 그걸 안 세우겼더라네. 그래 저 작은 어마니 기양 볼 딱 대놓고는, “당신이 무슨 놈의 열녀냐?”고 그래볼곤 끊어져 버렸어 인자.

<박문수 일화(간부퇴치)>

“니가 열녀는 무슨 열녀이냐? 우리 가문을 위헌, 이 위헌은 의미에서 내가 욕을 본다.”

<곽씨 집안의 열녀>

그 집 열녀집 진데다 [손으로 둥글게 그리며] 대고 뱅돌아 나무를 딱 해 세워 놓고 불로 질러. 불로 지르면서, “네 이년, 니는 아무리 구신일지라도 불에 타 죽을 짓을 했으니 불로 타 죽어야 된다.”

<현풍 곽씨 집안의 열녀>

“네 이년, 만 번 꼬실러 직이고, 만 번을 태아 직이도 네년 죄가 이년 많

은데, 네 년 죄를 갚을 수가 없는데, 오늘 저녁 불에 끄실리이 죽을 낯께 그리 알아라.”

...

“니 년 천 번 끄실러 직이고, 만 번 끄실러 직이도 죄는 죄대로 남을 년인데, 네가 열녀비가 당하나? 그런께 니 년, 오늘 저녁 니 년 불에 끄실러 죽인께 그리 알아라.”

<어사 박문수와 만든 열녀>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런 말로 입 밖에 내몬 내가 이 낯을 가지고 당장 당신을 직이 뵈다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형수는 어떻기나, 우리 가문을 위해서러 했는 일인데...”

위 인용문은 작은 주인이 열녀문을 소각하면서 드러낸 속내들이다. 작은 주인의 발화에는 가족을 배신한 형수에 대한 분노, 가문의 윤리를 더럽힌 구성원에 대한 분노와 그의 행동을 ‘가문을 위해서’라는 정당화가 나타난다. 이는 작은 주인의 행위가 일차적으로는 가문의 윤리를 위협한 인물에 대한 제거에 있음을 보여준다.

곧 ‘열녀’는 가문의 부정을 지우고 오히려 더 나은 가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활용된 것이다. 열녀는 조선 시대 전반을 관통했던 담론이었다. 특히 열녀에 대한 포상은 열녀에 대한 과도한 타이틀 경쟁을 유발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에게는 극단적인 수준의 열행인 순절(殉節)이 빈번히 요구되었다. 심지어 열녀를 정려하는 데에도 돈을 받았을 정도로 그 폐단은 점점 심각해졌지만, 가문에서는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열녀를 배출해야 했을 정도로 가문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였다.¹⁶⁾

16) 『조선왕조실록』 고종 43년 4월 17일: 신은 교육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외람되게 이처럼 번거롭게 아뢰니 다른 말을 끌어대는 것은 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구구하게 충성심이 격발되니 아뢰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장례원(掌禮院)에서 포상하여 정려문을 세워 줄 때 관례로 돈을 받아내는 일입니

작은 주인이 목도한 것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기지가 발
 휘된 것이다. 작은 주인의 가짜열녀 만들기, 그리고 열녀비 소각은 그에
 게 있어서는 가문의 정화작용이면서 가문의 영달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형수인 과부에게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순정한 것만 남게 하여 그저
 ‘열녀’로만 기억되게 하는 권력자 중심의 윈윈(win-win) 전략인 것이다.

이때 박문수는 철저한 관찰자의 시선에서 작은 주인의 행위를 공적으
 로 승인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박문수는 서사 전반에서 제3자의 시
 선으로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망한다. 간통 행위를 목격하고, 작
 은 주인이 열녀로 위장하였다가 열녀비를 소각하고, 그 원흉을 잔치에서
 푸대접받은 거지들에게 돌리는 것까지 모두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다. 유일하게 서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과부를 살해하는 것이고, 그 이
 외에는 관찰자이자 텍스트의 서술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듯 보인다. 이러
 한 모습이 작은 주인의 일련의 행위를 묵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다. 예컨대 지역의 미풍양속을 단속하는 ‘어사’ 박문수가 거짓으로 열
 녀를 만드는 행위를 보고서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나
 라에서 내린 열녀비를 불태우는 데도 지켜보기만 한다. 나아가 작은 주
 인의 모든 행동을 상술하였듯이 ‘지혜’로 보면서 그의 기지를 칭찬한다.

다. 대체로 충신, 효자, 열녀에게 정려(旌閭)하는 것은 국가가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고 풍화(風化)를 크게 숭상하기 위한 대병(大柄)입니다. 사실이 있으면 잘 선택하여 세심하게 살핀 다음에 정려문을 세우는 은전을 베풀도록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니 더구나 실제로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사행(事行)의 허실(虛實)은 따지지 않고 오직 관례적으로 납부할 돈 800이 있는 지 없는지를 보고서 허락하여 주니 행적은 허(虛)가 되고 관례로 바치는 돈이 실(實)이 됩니다. 가령 충신, 효자, 열녀의 실제 행적이 있어도 반드시 천고(千古)에 묻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 묘당(廟堂)에서 입법(立法)한 본의(本意)이겠습니까? 속히 장례관을 엄하게 신칙하여 이른바 정려예납전(旌閭例納錢)이라고 하는 것을 영영 폐지시켜야 합니다. 모든 은전과 관련된 것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널리 탐문하여 상세히 알아낸 다음에 주문(奏聞)하여 표창을 청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사사로이 뇌물을 받고서 없는 것을 조작하여 진짜로 만든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장(呈狀)한 사람과 도신을 모두 논죄(論罪)하여 풍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조선 후기의 열녀 정려에 대한 폐단은 이외에도 광종석의 <송열부전>이나 정약용의 <열부론>,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박문수 일화[열녀문의 내력]>

“이거 장래 크 큰 사람 되겠다.”구. 으사가 그러구설랑 인저, 올라 가서
참 올라 가는데, “내가 그 너를 그, 그 조정이 그 중용이루 쓸테닝께시리, 에
그냥 그 뗏하걸랑 올라 오게 하라.”

<박문수의 열녀 정탐>

도령을 서울로 불렀어. 불러갖고, “너는 좌우간 정승도 되겠고, 큰 집 지
킬 만하다.”

<곽씨 집안의 열녀>

박문수가 딱 봤어. 봐 가이고, 인자 그 집에 오래 있자 카니 노인한테 물
어 봐 가이고 이름 성명 적어 놓고, 적어 가지고, 그 서울로 올라가서 그 총
각을 불러 가지고 좋은 벼실로 주서,

“너저 가문은 참 좋은 가문인데, 너저 가문엔 효자 열녀가 안 떨어진다
하이(하니) 너저 가문에 벼실을 준다.”고. 그래 벼실을 주서 벼슬을 하더라고요.

위 인용문은 박문수가 작은 주인의 모든 행동을 칭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벼슬까지 내리는 부분이다. 작은 주인의 비범함에 대한 놀람이나
칭찬은 박문수의 시각에서 서술되기도 하고, 구연자의 평어에서 서술되
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들은 작게는 텍스트 세계 내에서 크게는 전승 집
단에서 내린 작은 주인에 대한 가치 평가이다. 이는 결국 가문의 부정을
제거하고 가문의 영달을 추구하는 작은 주인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긍정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곧 ‘어사’로서 그 지역 또는 가문을 정탐하고
자 했던 박문수가 가짜열녀 만들기과 열녀비 소각을 보고서 침묵한 것은
이 텍스트의 일차적 지향이 어린 주인의 ‘가문 유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박문수의 침묵은 어린 주인에 대한 조력으로 읽힐 수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가문의 위기 상황에서,
가문을 위해 기지를 발휘한 어린 가장에 대한 조용한 조력 행위인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짜열녀 설화는 작은 주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명함만을 가진 것이 아닌 가문을 대표할 수 있으면서, 가문의 실권을 쥐 진정한 가장으로서 거듭나는 성장 서사이며, 박문수의 조력 아래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IV. 결론

본고는 가짜열녀 설화에 나타난 가짜열녀를 만드는 행위와 열녀비 소각에 대한 그간의 해석에 텍스트 내적 분석과 전승 맥락의 관점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작은 주인의 열녀비 소각 행위의 의미가 텍스트 내적으로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나아가 텍스트 내에서 박문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의 행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간 어린 주인의 열녀비 소각 행위 자체에 대하여 상층 가문의 열녀 만들기에 대한 전승 집단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은 작은 주인과 그 가문의 부귀영화식 결말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새롭게 살펴볼 여지를 제공해주었다. 결국 어린 주인의 가짜열녀 만들기와 열녀비 소각은 작은 주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보았다. 작은 주인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가장으로서의 경험과 권위가 확고해지지도 않은 경계적 인물이다. 지금의 셈법으로는 어린아이지만, 텍스트 상에서는 ‘총각’, ‘초립동이’와 같이 서술되어 마냥 어린아이로 그려지지 않는음을 알 수 있으며, 원래 가장이 죽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서술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작은 주인이 가문의 여성이 저지르는 부정한 상황을 목도하였을 때 시도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로 ‘열녀’가 활용된 것인데, 이때 열녀가 선택된 것은 조선시대를 관통하고 있던 열녀 담론을 참조한 것이다.

텍스트는 일차적으로 어린 주인이 가문의 가장으로 거듭나는 성장 서

사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여타의 열녀나 간부설화와는 달리 여성이 타자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는 가문 의식 아래 가문의 위기 상황을 ‘가짜열녀’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박문수의 등장과 침묵은 작은 주인의 행위에 대한 조력 행위로, 그의 도움으로 작은 주인의 가문은 부정에서 벗어나 유지를 넘어 영달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텍스트는 결말부의 구연자들의 평어를 통하여 가짜 열녀 만들기 의 허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일부는 가문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고, 일부는 가문의식 아래 열녀의 허위성을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다. 곧 가짜열녀 설화는 작은 주인과 박문수, 열녀의 서사가 교차되어 있으며, 보여주기 방식을 통하여 가문 의식과 열녀 정령에 대한 허위의식을 이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상의 탐색은 텍스트 세계와 텍스트의 형성에 영향을 준 세계, 그리고 텍스트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전승 맥락을 나누어보고자 한 시도의 일환이다. 텍스트를 둘러싼 여러 세계가 상호 영향 관계에 있어 그 구분이 명확할 수는 없으나, 겹겹이 쌓인 세계를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텍스트 세계 내의 지향과 텍스트를 전승하는 텍스트 외적 세계의 지향이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한국구비문학대계』

곽정식, 「가짜 열녀 이야기의 존재 양상과 전승 의식」, 『어문학』 88, 한국어문화회, 2005, 163~184쪽.

곽성민, 「가짜열녀이야기의 형성 맥락과 전승 의미」, 『한국문학총론』 74, 한국문학회, 2016, 65~92쪽.

서정현, 「영남지역 구비열녀 설화의 양상과 그 의미」, 『인문사회 21』 9(4),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977~991쪽.

그레마스(A. J. Greimas),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숙 역, 그린비, 2011.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The Behavior and Meaning of Little Master in Folktale of a Fake Virtuous Woman

Lee, Hyo-Sun

This paper analyzes the text centered on the ‘little master’, the main character of the folktale of a fake virtuous woman, and explores the meaning of the little master’s act of making a fake virtuous woman and incineration of a virtuous woman memorial. In particular, the interpretation that the little master’s act of incineration of a virtuous woman memorial reflects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transmission group about making a fake virtuous woman by the upper-class families, as there are parts that conflict with the ending of the little master and the family’s wealth, so there is room for a new examination. The little owner is not an adult, but a borderline figure who is a head of the household but has not enough experience. When a little owner in this situation witnessed the unclean situation committed by a woman in the family, “A virtuous woman” was used as a political card that could be attempted, and the selection of a virtuous woman was referring to the discourse of a virtuous woman, which passed through the Joseon Dynasty.

The text primarily shows that it is a growing narrative in which a little master is reborn as the head of a family.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erase the perception that women are being otherized, unlike other a virtuous woman or adultery folktale. The story shows how to overcome the crisis situation of the family under the family consciousness by using the keyword ‘A fake virtuous woman’. In particular, Park munsu’s appearance and silence are acts of support for the actions of the little master, and with his help, the little master’s family is freed from injustice and can go beyond maintenance and get advancement.

These texts also reveal the falsehood of making a fake virtuous women through the comments of the narrators at the end. Some show the family

consciousness clearly, while others criticize the falsehood of the a virtuous woman under the family consciousness. In short, the story of a fake virtuous woman intersects the narratives of the little master, Park munsu, and a virtuous woman, and through the method of showing, the family consciousness and the false consciousness about the commendation of the a virtuous woman are portrayed dually.

Keywords : Growth narrative, Ordeal, Text world, Index, Borderline character, A virtuous woman, A fake virtuous woman

투고일: 2022. 08. 05./ 심사일: 2022. 08. 18./ 심사완료일: 2022. 08. 18.